

남원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시동'

연구용역 착수...10월까지 필요 법령·기술기준 등 검토 기본 설계 비용 20억 정부 예산 확보 2026년 완공 목표

남원시가 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시동을 걸었다.

23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지난달 19일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5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전북도와 전주시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이 용역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친환경 전기열차의 해외 사례와 관련 기술·제도 분석, 도입 시 필요한 법령과 기술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친환경 전기열차에 적합한 설비형식·교통방식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충족되는 법령에 대해서

도 검토하게 된다.

또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은 남원시가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 ▲산악관광 다변화에 따른 관광모델 창출 ▲지방도도를 활용한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 도입 등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중앙부처를 설득해 온 현안이다.

시는 오는 10월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회단계에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용 20여억원을 반영하고 오는 2026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특히 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사업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



남원시가 지역 주요 현안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친환경 전기열차 조감도. <남원시 제공>

해 움직이는 친환경 전기열차다.

설치지역은 정부에서 관리·운영하는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또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안전성이 선결과제로 꼽혀왔다. 정부에서 지원·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남원시 관계자는 "정책연구 착수로 지리산 전기열차 도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군산시, '생활밀착형 SOC사업 발굴 전략회의'

전통시장 노출 전선 교체사업·노후교량재가설 등 추진

군산시가 지난 22일 '생활 밀착형 SOC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 회의'를 갖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생활 밀착형 SOC는 기존의 대형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사업으로 여가·건강, 지역 활력, 안전·환경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중심의 정부 역할 추진 사업이다.

시는 이승복 부시장을 단장으로 생활 SOC 추진단 및 자문단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생활 SOC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장(부시장)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점 신규사업으로, 빠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

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노출 전선 교체사업,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 어촌뉴딜 3가지 도량 개발사업, 공공텃밭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23개 생활 SOC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 공모 준비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년)을 오는 3월 확정할 예정으로, 부처별 3개년 계획을 자세하게 검토해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공모에 대응할 방침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서 25일 中企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전북도·산업통상자원부 등 15개 기관 참여

고창군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25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일 전주에서 시작해 전북도 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29일까지 진행된다.

참여기관은 전북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총 15개의 기관이다.

설명회에서는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참여기관별 개별 상담부스를 운영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다.

군은 관내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협약,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에 노력해 주는 중소기업인들이 이번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한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보나오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정진 기자 phj@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성) 생활안전위원회는 최근 설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가정 등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읍경찰서 제공>

정읍시, 농촌 빈집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정읍시는 농촌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으로, 소유주는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해 다음달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총 2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슬레이트지붕 250만원, 일반지붕 100만원 등을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동 지역이며,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 지역은 제외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통해 우범화 우려지역 해소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해 작년까지 1000여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보건의료원, 남성 500명 전립선암 항원검사 무료 지원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올해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특이항원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검사 대상은 만 50세 이상 75세 이하 순창군민으로, 전립선 증상 접수표 문진 후

혈액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길 예정이다. 검사를 원하는 군민들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료 검사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군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510명을 대상으로 이 검사를 해 4명의 암환자를 발견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남성 10대 암 중 5위인 전립선암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대부분 증상이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50세 이상이면 전립선암 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매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339 (수기동 구,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02호, 38평
- 하천방향, 전체 을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대출 3천만원 가능
- 현재 보5백만원에 월60만원에 임대중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급매 8500만원 문의. 010-3605-5000